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중국 대외직접투자, 세계 5위 · 개도국 1위

□ 최근 중국상무부, 국가통계국,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‘2009년 중국 해외직접투자(FDI) 통계’에 따르면, 작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약 565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5위, 개발도상국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.

- 작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대비 1.1% 증가한 565억 3,000만 달러로 8년 연속 증가함.
- 이는 전 세계 해외투자의 5.1%*에 해당되는 수치로 세계 5위(전년도 12위), 개발도상국에서는 1위를 차지함.

* 유엔무역개발회의(UNCTAD) 가 발표한 ‘2010년 세계투자보고서’에 의하면, 2009년 세계 해외직접투자액은 총 1조 1,000억 달러로 집계됨.

-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약 12,000개의 중국기업들이 세계 177개국(전 세계의 약 80%에 해당) 13,000여 개의 현지기업에 투자했으며, 자산총액은 1조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.

□ 해외직접투자 대상 국가와 기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13년에 이르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자산 규모는 각각 천 억 달러와 5천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됨.

- 해외직접투자 대상 국가와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주력 산업인 농업, 제조업 뿐만 아니라 최근 발전하고 있는 서비스업,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의 투자가 가능해지고 투자기업도 국영기업 중심에서 지역 및 민간기업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.
- 전문가들은 중국경제 발전이 현재와 같이 지속되고 과거 10년간 해외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로 볼 때 2013년 연간 해외직접투자액과 해외보유자산은 각각 천 억 달러와 5천 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(중화공상시보, 법제만보, 9/7)